

가을철 산행 · 단풍구경을 한번에



단풍으로 붉게 물든 구봉산 정상.

북한의 개마고원과 생벽을 이루는 곳이 전북의 진안고원이다. 이곳은 평균 해발 400~500m인 고원지대의 전형적인 특징이 잘 살아 있어 천혜의 고장이란 명성을 얻고 있다. 진안군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중간 지역에 위치해 있는 산지 지역으로 군과 면 경계도 대부분 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안군 산지 분포는 사졸기에 따라 크게 금남호남정맥 중심의 남부 산지 지역, 금남정맥 및 호남정맥 중심의 노령산맥 지역인 서부 산지 지역, 그리고 진안고원 내의 산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진안고원의 산 중에는 1,000m를 넘는 산이 5개이다. 성수산 1,059m, 덕태산 1,113m, 선각산 1,142m과 운장산 1,126, 구봉산 1,002m이 그곳. 이 중 단풍의 계절 가을에 산행과 단풍구경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구봉산과 운장산을 소개해본다.

▲호남의 이름 있는 산을 모두 관망할 수 있는 운장산

진안고원의 서북방에 자리하고 있는 운장산은 부귀, 정천, 주천 3면과 완주군 동상면에 걸쳐 있다.

운장산은 노령산맥의 주봉으로 동쪽으로 이어져 북두봉, 구봉산이 자리한다. 운장산은 운장대(1,126m), 동봉(1,133m), 서봉(1,118m)의 세 봉우리가 있는데 예전에는 운장대의 높이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최근 국토정보지리원의 측량결과 동봉이 더 높은 것으로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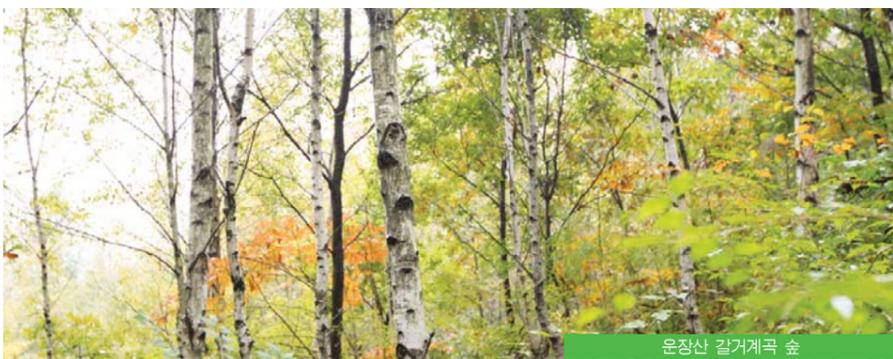
드높은 산에 언제나 구름이 간다고 해서 운장산이라 불렀다. 옛 이름은 추출산 또는 주화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운장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로, 운장산과 연봉으로 이어진 북두봉, 구봉산, 명도봉 등은 등산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 운장산에는 골짜기도 많다. 운장산자연휴양림(정천면 갈무리 갈무리마을에서 북두봉으로 오르는 길), 석막골(정천면 봉화리 가리점에서 갈무리마을로 오르는 길), 녹막골(주천면 대불리 화선동에서 북두봉에 이르는 길)이 비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주변에 높은 산이 없는 평야 지대이기 때문에 정상에 오르면 전망이 좋고, 물이 맑고 암벽과 숲으로 둘러싸여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가 높다.

부근에는 북두철성의 전설이 내려오는 칠성대가 있다.

▲운장산자연휴양림 내 명품 숲, 갈거계곡 숲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운장산자연휴양림 내에는 원시림에 가까운 숲과 아름다운 비경, 작은 폭포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계곡 전체를 뒤덮는 명품 갈거계곡 숲이 있다. 계곡 내에는 제방바위, 비당바위, 학의소 등 명소가 자리잡고 있다.



운장산 갈거계곡 숲

▲100m 구름다리가 놓인 구봉산

아홉 개의 봉우리가 뚜렷하여 이름 붙여진 구봉산(1,002m)은 주봉 천왕봉에서 2시 방향으로 여덟 봉우리가 줄줄이 늘어선 모습이 장관이다.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구봉산은 인근 운장산, 마이산과 더불어 명산으로 꼽힌다. 또한, 예로부터 이름 높고 '동국여지승람' 등 빠짐없이 등장하는 산이다.

이 산에는 일광선조리는 천하명당이 있다고 전해지며, 875년 창건한 고찰 천황사가 있다.

정상까지 오르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리며 정상에 오르면 북쪽으로 운일암반일암 계곡을 형성하고 있는 명도봉과 명덕봉이 보이고 너머로 대둔산까지 보인다. 서쪽으로는 북두봉과 운장산이 한눈에 들어오며 남쪽으로는 부귀산, 민덕산이 조망되며 남동쪽으로는 덕유산과 지리산의 연봉이 줄지어 서 있다.

운장산 노령산맥 주봉으로 동쪽으로 이어져 북두봉 · 구봉산이 자리잡아 운장산자연휴양림 내 갈거계곡 숲 제방바위 · 학의소 등 볼거리 많아 '동국여지승람'에 등장하는 구봉산 일광선조리는 천하명당 있다고 전해져

특히, 2015년 4봉과 5봉 사이에 100m 길이의 구름다리가 놓여진 이후 등산객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운장산 이끼계곡

무주 반디불 농·특산물 서울로 갑니다!

해발 400~800m 연평균 11.3°C
안전한 먹거리! 반디불이 배달합니다!

농·특산물 홍보 & 판매행사

기간 : 2018. 11. 2(금) ~ 11. 7(수)

장소 :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 (창동,고양,성남)

